

2020 정평환보 (JPIC) 수상자

캐롤린 타운즈(Carolyn D. Townes), OFS, 국가형제회 활력자

2020년 정의, 평화 및 환경보전 상 수상자는 후안 드 파디아 지구 형제회에 속한 야고바 형제회 (Brother Jacoba Fraternity)의 모니카 올리베라(Monica Olivera) OFS 입니다. 모니카의 마음은 우리나라의 생활 환경이 끔찍하고 열악한 외진 곳에서 살고 있는 잊힌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뻗어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단결시켜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사는 잊혀진 빈곤층을 돕기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모니카는 캔자스주 로렌스에 비영리 재단인 제일 국민 봉사 (*Outreach to First Nation People, 원주민*)를 설립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 프로그램은 외딴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에 의류, 신발, 침구, 담요, 식기류, 주방 용품, 가구, 장난감 및 책을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지역 교회의 기부를 통해 얻습니다. 물품을 분류하고 상자에 담은 후 대형 이동 트럭을 대여하여 다양한 예약 장소로 운반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3 ~ 4 회의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린이를 위해 수집한 장난감은 크리스마스 시즌 이전에 운송될 수 있도록 따로 보관됩니다. 또한 지역 가톨릭 학교 중 두 곳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지역 아동에게 장난감과 겨울 코트를 기부하였습니다.

모니카의 역할은 재단 활동을 조정하고 공동체의 참여를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바 형제회 및 지역 사회의 자원 봉사자들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금전적 기부는 개인과 야고바 형제회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국가 재속 프란체스코 회에서 개별 보조금 형태로, 그리고 프란치스칸 카푸친의 상당한 기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전이나

장애물이 발생할 때마다 모니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인내합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애리조나의 호피 (Hopi) 및 나바호 (Navajo) 보호 구역과 사우스 다코타의 양크톤 라코타 수 (Yankton Lakota Sioux) 보호 구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통하여 분명해졌습니다. 네브래스카 북동부의 오마하 (Omaha) 부족과 위네바고 (Winnebago) 부족; 캔자스 동부에 있는 포타와토미 (Potawatomi) 국가의 프레리 밴드; 캔자스 북동부의 키커푸어 (Kikapoo) 부족에로의 다른 여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네이션 사람들을 위한 제일 국민 봉사 (*Outreach to First Nation People*) 재단에 의해 실행된 또 다른 프로젝트는 애리조나 남부의 토호노 오담 (Tohono O'odham) 국가 보호 구역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캔자스 공립 도서관 시스템으로부터 5,000 권의 아동 도서의 기증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매년 수여하는 JPIC 상의 기원

연례 JPIC 상은 재속 프란치스코 회가 성 프란치스코 제 3 회로 불렸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 10월, 성 프란치스코 제 3 회 집행 이사회는 국제 평화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에게 메달을 수여하겠다는 제안을 처음 논의한 후 열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이 메달은 성 프란치스코 평화 메달 (St. Francis Peace Medal)이라고 불렸습니다. 최초의 메달은 1950년 교황청의 대사인 마이런 테일러 (Myron C. Taylor)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메달은 1982년까지 매년 수여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평화 메달의 주목할만한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3-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Dr. Martin Luther King, Jr.)
1965-교황 바오로 6 세
1968-로버트 F. 케네디 (사후)
1974-캘커타의 테레사 수녀

1983년부터 2000년까지는 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에 수상의 초점이 약간 변경되면서 수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상은 이제 평화와 정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프란치스코인들이 주어졌습니다. 2011년에는 환경보전을 포함하도록 초점을 확장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정평환보 상 (JPIC Award)이 되었습니다.

JPIC Award의 주목할만한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 짐 플리켄저, OFS 아마존 프로젝트로 나병 환자를 돕고 아마존에 학교를 건설
2007- 페루에서 병든 어린이를 위한 클리닉과 쉼터를 운영하는 의사, 토니 라자로, OFS 박사
2010- 데이비드 바우어 수사, OFM는 노숙자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게 생명유지를 도와준 공로
2011- 루이 비타리 신부, OFM. 전쟁에 대한 항의, 특히 핵무기, 고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옹호.
2019- 이민자와 난민과 함께 일한 켄트 페리스, OFS.

1963년 재속 프란치스코 회에 보낸 편지

1963년 Dr. Martin Luther King, Jr.는 St. Francis Peace Medal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제 3회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이 글은 57년 전에 작성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감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수년에 걸쳐 크게 변했지만 킹 박사의 통찰력과 열망은 이 편지가 쓰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 프란치스코 평화 메달로 저를 그렇게 중요한 방식으로 영예롭게 해주신 당신과 성 프란치스코 제 3회에 감사를 표시하는 다소 뒤늦은 쪽지입니다. 이것은 기억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소중히 간직할 영광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저에게 이 뛰어난 상을 수여하려는 당신의 열망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표현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나라의 인종 정의를 위한 투쟁과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 디디겠다는 기독교 교회의 새롭고 중요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개신교인이므로 성 프란치스코 평화 메달 수여는 현재 개신교와 가톨릭계에서 크게 살아있는 새로운 에큐메니칼 관심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당신의 관대 한 몸짓은 교황 요한이 시작한 이 운동 즉 모든 기독교인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교제를 가져오는 데 길고 먼 길을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자유와 정의를 위한 어렵지만 도전적인 투쟁에 종사하는 우리에게 교회의 지지에 대한 위로의 인식을 줄 것입니다.